



치매안심마을 캠페인



순천만잡월드 조감도



한중일 서예전각 교류전(테이프 커팅)

# “호남3대도시 ‘순천’, 삶의 품격이 달라요”

## 스마트안전도시 구축·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삶의 질 업그레이드 지속가능한 교육·순천형 문화정책·힐링 공간 확대로 살고 싶은 도시

인구감소 시대에도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며 작년 11월 호남3대 도시에 등극한 순천시가 2021년 안전, 복지, 교육 등 정주여건 강화와 다양한 문화정책 및 생활 인프라 확대를 통해 30만 자족도시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4월 말 기준 순천시 인구는 284,137(외국인 포함)명으로 전남 제1의 도시, 호남 3대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순천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의 원인은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만들기 등 정주여건 개선과 누구나 행복한 포용적 복지 시책추진에 있다. 또한 순천형 문화·교육정책, 국가정원과 순천만이 제공하는 정서적 만족감, 숲과 나무·정원으로 사람이 숨쉬기 가장 편한 도시 역시 호남 3대 도시가 되는데 기여했다.

순천시는 호남3대 도시에 안주하지 않고 30만 자족도시를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 시민체감 정책 추진으로 시민들의 삶의 품격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 ▶ 국제적인 스마트안전도시 구축으로 누구나 편한 도시를 만든다.

순천시는 생활, 범죄, 교통, 감염병 등 7개 분야에서 국제안전도시 수준의 민관협력 지표실천사업을 추진해 2023년 국제안전도시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재해 위험지역에는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대비 물품 비축 통합 창고 신축, 인공지능기반 CCTV 설치로 위기에 강한 순천, 안전한 도시 순천을 만든다.

이밖에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교통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마트 신호체계 교차로를 구축 교통사고 없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 ▶ 품격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순천시는 시민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확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외된 시민들이 없이 누구나 잘 사는 도시를 위해 돌봄복지에 힘을 쏟고 있다.

임신·출산·육아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 및 다자녀 기준 확대,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과 함께 어린이집 무상보육 실시, 어울림 보육스테이션 확대, 공립어린이집 확충, 가족센터 건립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

청년 주거비 및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고 맞춤형 근로기회 제공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상담창구 순천행복톡을 운영해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24시간 스마트 어르신 돌봄 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전 시민 치매치료비 지원, 거동 불편자 건강주치의 서비스 등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 ▶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배움이 즐거운 도시를 만든다.

순천시는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평생학습 강좌인 모두사랑학교를 운영, 생활기능·직업능력·인문교양·문화예술 4개 분야 33개 프로그램의 알찬 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화상회의실 구축 및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작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비대면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교육기회 감소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AI 평생교육도시를 선도하고 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순천만 잡월드와 자유학년제 연계·기후 생태 환경 교육·지역의 자원과 연계한 교육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미래교육 환경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문화를 주제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오는 10월 개최한다. 장애인이 평생학습 주제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순천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 ▶ 순천형 생태문화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순천시는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통해 한·중·일 문화교류 행사를 연중 추진한다. 문학·사진분야 작가 교류전 및 동아시아 그림책 웹툰 페

스타, 한중일 미래예술융합 페스티벌, 동아시아 청소년 예술제, 한중일 평화포럼 등 다채로운 교류행사가 이어진다.

그리고 연내 제3차 법적문화도시 지정은 목표로 문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해 지속가능한 생태문화도시 브랜딩을 위한 순천형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생태문화사업 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이다.

올해 6월 순천만 습지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맞춰 지역 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기반으로 한 세계유산 도시 브랜드를 구축한다. 세계유산축전 개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명품 투어를 운영하여 명실상부한 유네스코 유산도시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순천다운 문화콘텐츠 생산에도 힘쓴다. 순천 문화재 야행 및 제38회 순천 팔마문화제 개최로 시민이 참여하는 순천형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한다.

###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시민 휴식공간 확대한다.

순천시는 지자체 처음으로 두 번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시민이 주도하는 일상 속 정원을 테마로 도시전체가 거대한 정원으로 연결된 정원로드가 조성된다. 전 도심의 정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 마디로 정원이 살고 일상인 '정원에 삽니다'가 실현되는 생태도시이다.

코로나가 장기화 될수록 공동체 회복, 정신적·육체적 치유라는 정원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역사문화 정원, 동천정원 가도, 국가정원, 순천만 문화정원 크게 네 곳에서 진행된다. 치유정원, 숲속의 미술관, 생태저류지정원, 국가정원 리뉴얼, 순천만 문화벚길정원 등 다양한 힐링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주말 일평균 13,000명이 방문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b>호남신문</b> www.i-honam.com		<b>대표전화 (062) 229-6000</b> 광주서구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b>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b> <b>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b>		
<b>동부취재본부</b>	<b>전남 순천시 총호로 63 가동 2호</b>	<b>TEL (061) 905-2011</b> <b>FAX (061) 905-2012</b>
<b>서울취재본부</b>	<b>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b>	<b>TEL (02) 2238-0003</b>
<b>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b>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터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